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유머

-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시절 헝클리로부터 저격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수술실에 도착한 의사를 바라보며 “물론 당신들도 공화당원이겠지. 민주당원이면 수술 안 받겠네.” 라고 말하자 주치의가 “물론입니다. 각하, 오늘만은 우리 모두 각하를 위한 공화당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슴 졸이며 방상을 찾은 낸시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총알이 날아오는 걸 깜박했어. 영화에서는 재빠르게 참 잘 피했는데.....”

- 어떤 참모가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여론 결과를 보고하자 이렇게 받아쳤다. “걱정 말게. 총 알 한 번 더 맞으면 되겠지.”

- 레이건이 80년도 대선에 출마했을 때,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함으로써 군중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미국의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다. 경기침체는 이웃이 실직했을 때, 불황은 내가 실직했을 때, 경기회복은 카터가 물러났을 때이다.”

- 재선에 도전했을 때 그의 나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 후보였다. 상대편 후보는 당연히 그의 고령과 건강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상대방 후보였던 먼데일은 방송사 토론에서 이렇게 레이건을 공격했다. “우리 미국은 젊고 패기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국민 여러분이나 레이건 씨 자신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레이건은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넘겼다.

“나는 이 자리에서 상대가 나이 어리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얼마나 노련하고 세련된 유머화법인가. 오히려 공격했던 먼데일이 궁지에 몰리고, 청중들을 웃음으로 유도하며, 자기 편으로 만드는 레이건 식 화법이야말로 유머 한 마디로 백 마디 말을 이길 수 있다는 촌철살인의 효과를 냈다.